

2017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12.14(목) 12:00~13: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객관성과 뉴스의 균형 제고해야

-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굴욕외교' 공세 속에 개최되는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전문가 대담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현황 및 우리의 자세와 대응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김상선 위원)
- 연합뉴스TV가 속보에 강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정치·사회 등 무거운 분야에 치중된 것도 사실. 백화점식 뉴스가 일부 시청자들에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매시간 거의 같은 큐시트를 반복하다 보면 지속적인 시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한시간 건너 다른 포맷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도 필요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기사, 미담 기사 등도 반영해 다채로운 구성을 만들 필요도 있음(주철환 위원)

▲ 앵커 및 자막처리 의견

- 시청률을 YTN을 앞질렀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진행자는 부족한 게 사실. YTN은 장기적으로 앵커를 키워 시청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대담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있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어. 당장 예쁘고 잘생긴 진행자들은 눈길을 끌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을 끌기엔 한계가 있음. 젊은 감각의 뉴스 이미지도 있는 만큼 안정감 있는 진행자와 함께 뉴페이스도 적절히 잘 배치해야.. 또 기회가 되면 영화나 드라마 등에 자주 노출해 채널을 일반 대중에게 더 알릴 필요도 있어 보임(주철환 위원)
- 연합뉴스TV를 자막으로만 보아야 하는 분들이 많은 점 등 다른 어떤 매체보다 자막의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인용부호 사용 등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김상선 위원)

▲ 기타 의견 및 긍정적 평가

-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방언을 살린 뉴스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함. 방언 속에는 표준어에서 알기 힘든 깊은 의미와 어원을 알 수 있음. 우리말을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방언을 지켜나가야 함(박동민 위원)
- 시원해진 스튜디오와 디자인이 와이드 프로그램의 면모를 보여줌(박정숙 위원)
- 이태리 스위스 등 성탄을 앞둔 축제분위기 외신을 통한 시의성 있는 리포트가

- 뉴스하면 사건사고 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볼거리를 제공함(박정숙 위원)
- 연일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씨 속보가 강원도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중계차를 이용하여 장소에 따른 분위기를 스케치하여 추위에 대한 경각심을 피부에 와 닿게 하였음(박정숙 위원)
 - 동파주의보에 따른 주의사항과 서해안 눈사태까지 세밀한 안전대비가 돋보임. 제작진은 고생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버라이어티한 구성을 보여줘 성의 있게 보임. 오른쪽 상단에 지역별 최저기온을 자막으로 보여줘 유용한 정보가 됨(박정숙 위원)
 - 앵커들의 화면속의 비율이 커진 경향이 있어, 앵커들의 뉴스 소리와 얼굴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보인다. 매우 바람직한 TV방송의 장점을 살린 연출이라 생각되며, 앵커들이 교차로 멘트를 말할 때에도 상대의 뉴스를 표정으로 함께 공감하는 화면은 생동감이 느껴지고 유기적 구성으로 보임(박정숙 위원)
- . (끝)